

홍수가 끝났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삶은 계속 되었다. 세상은 홍수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지만 사람들의 삶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노아는 홍수 전에 하던대로 다시 농부가 되었다. 방주에 비축한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해야했다. 노아는 포도나무도 심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거벗은지라 / 창세기 9:20-21**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마실 음료를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홍수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사방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찾기 힘들다. 마실 물이 귀한 곳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문제는 노아가 취해버린 것이다. 술에 취한 노아가 자신의 장막에서 벗거벗고 있을 때 아들 함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나체를 본 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 창세기 9:22

아버지의 벗거벗은 모습은 자식이 감히 보아서는 안될 것이었고 덮어 주어야 하는 허물이었다.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 노아에게 아들 함이 준 것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덮어줌이 아니라 수치와 불명예였다. 게다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만 목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아버지에게 다가가 수치를 가려주었으며 감히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술에서 깨어 사건의 전말을 들은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선언한다.

이 사건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도 아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혹독한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실제로 성취되었다.

본문을 대하며 흔히 받는 질문은 '가나안이 종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는 것이다. 애초에 술에 취해 수치를 드러낸 노아의 잘못이 크냐,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까지 전달한 함의 잘못이 크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홍수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영향력이 아닐까?

노아의 술취함까지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식들의 존중을 받을만큼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노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노아의 술취함을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할 만한 의로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노아가 겪었을 극심한 내적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아는 생존자다.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모두가 죽었다. 노아가 아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노아에게는 앞으로의 일을 논의할 어른도, 친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혼자 살아남았음을 즐거워하며 취했을 것 같지는 않다. 노아가 겪은 내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 사건은 노아 개인의 술취함과 노아 가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홍수 심판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상과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해 가정 안에서 자식이 저주를 받고 이후의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듯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노아의 때에도 범죄가 일어났다. 홍수에도 씻겨지지 않은 죄의 영향력은 당대에 즉시 나타났다.